

# 조선전기 선비들이 추구한 유교적 이상사회\*

이수환\*\*

## 【 차례 】

- I. 머리말
- II. 도학정치 추구
- III. 유교적 향촌질서 확립운동
- IV. 절의사상 구현-하양허씨가문 사례-
- V. 학문적 정통성 확립-문묘종사 운동-
- VI. 맺음말

### 【 국문초록 】

본고는 조선전기 선비라는 주제로 그들이 추구한 유교적 이상사회에 대해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선비라고 하면 여말선초의 사대부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조선왕조 개국을 둘러싸고 관학파와 사학파로 이후 세조정변을 계기로 훈구파와 사림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본고의 주제인 선비의 모습은 16세기 집권 훈구세력에 대한 비판세력으로서의 사림파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 사림세력은 집권세력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핵심은 (1)

---

\* 이 논문은 2014년 10. 17일 경북정체성포럼(선비분과)에서 기획된 주제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정치적으로는 유교적인 이상국가 건설을 위한 도학정치를 추구하였으며, 이것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조광조부터이다. (2) 향촌의 재지적 기반 위에서 학문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鄉黨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이들의 향촌문제에 대한 관심은, 종래의 고려조적인 佛敎의이고 淫祀의인 吏族중심의 향촌사회를 土族 중심의 유교적인 향촌질서체제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朱子家禮』·『小學』·鄉射禮·鄉飲酒禮 등 성리학적 실천윤리의 보급을 위한 유향소 복립운동, 나아가 향약·서원보급 운동을 전개하였다. (3) 성리학적 대의명분으로 節義사상을 계승 실천하였고 (4) 집권의 명분 강화를 위한 학문적 정통성 강화를 위한 문묘종사 운동을 추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 시기 사림세력을 특징지을 수 있는 위 4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 주제어

趙光祖, 退溪, 河陽許氏, 東方五賢, 文廟從祀

## I. 머리말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선비라고 하면 여말선초의 사대부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조선왕조 개창을 둘러싸고 관학과와 사학과로 이후 세조정변을 계기로 훈구파와 사림파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 논문의 주제가 되는 선비의 모습은 조선왕조 개창을 둘러싸고 재야세력으로 밀려난 계열의 후예인 재지사림 내지 16세기 집권 훈구세력에 대한 비판세력으로서의 사림파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사림세력은 대체로 鄉村에서 교육과 향촌건설에 주력하였다. 이들 사림세력은 한때 세종의 폭넓은 인재등용책에 힘입어 일시 중앙정계에 진

출하기도 하였으나 본격적인 진출은 성종 때부터이다. 이러한 사림세력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의 부상은 이 시기 집권층의 귀족화·보수화의 추세에 따른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견제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내세운 관료의 신분적인 특권의식에 의한 私利추구 성향을 배제한 성리학적 公道論의 정당성이 재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림세력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1) 정치적으로는 도학정치를 추구하고, (2) 지방의 재지적 기반 위에서 학문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향당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이들의 향촌문제에 대한 관심은 관권 우위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향촌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3) 성리학적 대의명분으로 절의사상을 (4) 집권의 명분 강화를 위한 학문적 정통성 강화(문묘중사)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 시기 사림세력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위 4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sup>1)</sup>

## II. 도학정치 추구

사림은 고려후기 士大夫에서 조선왕조 개창을 둘러싸고 재야세력으로 밀려난 계열의 후예들이다. 사림세력이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훈구파에 대칭되는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것은 성종대부터이고, 그

---

1)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본고는 이 문제에 대해 새롭게 검토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조선전기 선비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리한 것이다.

중심에는 김종직이 있었다. 김종직은 세조 5년(1459) 29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이래 성종 23년(1492) 62세로 죽을 때까지 많은 문인을 길러 내었다. 김종직의 이러한 교육활동은 그의 대표적인 제자인 김굉필·정여창으로 이어져 이 시기 사림과의 형성과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성종대 사림과는 김종직의 문인을 주축으로 해서, 여기에 김굉필·정여창의 사우 문인이 첨가된 것이다.<sup>2)</sup>

3인의 「사우문인록」과 『東儒師友錄』에 근거하면 김종직의 문인은 65명, 김굉필의 문인은 41명, 정여창의 문인은 47명으로 확인된다. 3인의 문인 중 중복된 인물을 감안하면, 사우·문인은 105명으로 파악된다. 이들 사림과는 김종직이 중앙관직에 복귀하면서부터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활발해졌는데, 이들은 주로 언관직, 언관직 가운데서도 홍문관에 보다 많이 진출하였다. 사림과가 언관직을 장악하게 되는 성종 말경에 가면 이들의 언론활동은 기존의 단순한 훈구세력의 비리에 대한 공격에서 나아가 세조체제를 문제 삼는 昭陵복위주장, 弔義帝文의 사초화 등 훈구과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성종대 사림과의 활동은 훈구세력에 대응될 만큼 충분한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 그나마 이 정도의 언론활동이 가능했던 것도 사림과의 결속된 힘에 의한 것 만이라고는 할 수 없고, 문치지향적인 성종 자신의 의지와 관용이 크게 작용하였다.<sup>3)</sup>

이러한 사림과의 언론 활동은 훈구과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고, 훈구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자 사림과의 공격은 그 강도가 더 커져갔

2) 이수건, 『영남사림과의 형성』, 영남대출판부, 1979, 258-276쪽 ; 이병휴, 『조선전기 기호사림과 연구』, 일조각, 1984, 15-34쪽.

3) 이병휴, 『조선전기 사림과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9, 제 1편 3장, 「16세기의 정국과 영남사림과의 동향」, 106-111쪽. 이하 서술은 이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다. 무오사화는 이러한 사림파의 공격이 자기들의 집권 기반이 되었던 세조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위기의식을 느낀 훈구파의 반격이었다.

무오사화 때 직접적인 화를 입었던 자들은 김종직의 문인이었다. 김종직의 문인은 그 성분이 다양하였다. 먼저 출신 지역별로 보면 영남 출신과 비영남 출신으로 나눌 수 있고, 학문적인 경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사림파의 사상적 지향은 경학 특히 성리학의 탐구에 주력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김종직 당시는 사장학에서 경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김종직은 사장과 경학을 겸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학문이 지닌 양면성으로 그의 문인 중에는 경학 즉 성리학을 탐구하는 부류와 사장을 추구하는 부류 두 갈래로 계승되었다. 김종직의 3대 문인 중 경학 계열을 잇는 대표적인 제자인 김굉필과 정여창은 많은 제자를 배출하여 사림파의 확산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김일손은 사장·절의로 이름을 떨쳤지만 교육활동을 통한 문인은 배출하지 못하였다.<sup>4)</sup>

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눌 수 있는데, 강경파에는 비영남출신과 사장 지향의 인물이 많고, 온건파에는 영남출신과 수기를 지향하는 경학 계열의 인물이 많았다. 김굉필은 한때 그의 스승인 김종직의 현실안주적인 태도를 비판하였지만 그는 정여창·조위 등 여타의 영남출신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온건파에 속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세조의 등극을 내심 불의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sup>5)</sup>

이들 김종직 일파의 정치 사회사상은 15세기 후반 집권 훈구파에 대항하여 성리학적인 윤리 질서를 확립하고 사림주도형으로 향촌사회를 건

4) 이병휴, 앞의 책(1984), 29-34쪽.

5) 이수건, 앞의 책, 273-274쪽.

설하며, 훈구파의 권귀화와 전횡을 막고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정치를 추진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성리학 적 실천윤리의 핵심인 소학과 주자가례를 보급하고 솔선실천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사림파의 노력은 무오·갑자 양대 사화로 인해 여의치 못하였으며, 사림파 세력은 이후 중앙정계에서 거의 도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사림파의 성장은 역사적 대세였고, 따라서 중종반정 이후 공신들의 權貴化에 따른 그 대응세력으로 사림파가 다시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들 사림파는 훈구파의 권력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학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세력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조선왕조는 건국 당시부터 유교국가를 표방하였지만, 유교적인 이상 국가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중종조 조광조의 등장부터이다.<sup>6)</sup> “천명을 性이라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道라고 한다”는 유교의 논리구조에 따라, 사림파는 군주나 백성 모두가 천명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회를 至治 즉 이상사회로 규정하였고, 요순삼대가 그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모든 성리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지만 당시의 사림파는 이러한 지치주의를 재현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조광조는 이러한 유교정치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자가 먼저 유교적 가르침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정국공신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6) 조광조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론에 대해서는 鄭斗熙, 『朝鮮時代 人物의 再發見』, 일조각, 1997, 제2장 趙光祖 참조.

(연산군 시절 柳洵 등 정국공신들의 비굴한 행동에 대한 비판) 작은나라(조선)에서 선비들의 기풍을 함양하지 않고 도리어 이해관계에 따라 처신하는 풍조에 조정의 사대부들이 물결에 휩쓸리듯 쓸리게 되면 어찌 이치에 맞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天地를 속이고서 어떻게 정치를 바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7)

조광조는 道理나 절의는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로서는 결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당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비들의 기풍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유교정치이념을 확고하게 제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 사림파들이 제시한 도학정치는 유교 정치의 근본목표가 民惟邦本 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백성의 생활을 안락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그들은 도학정치의 근본이념을 爲民, 愛民에 두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실천내용을 제시하였다. 사림파는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권력의 주체인 군주의 자질이 현철함이 필수적이라는 賢哲君主論을 제시하였다. 사림파는 현철군주론은 仁政과 德治로 가는 도정이라고 생각했다. 나아가 군주는 대신을 성의로 감동시키고 예로서 대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연산군 때 무너져 버린 유교국가의 기본이 되는 군신간의 의리를 재정립해야만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조광조의 입장을 보면

무릇 임금과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반드시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여 기탄없이 생각하는 바를 다 말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유교적인)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들과 대간들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이

7) 『靜庵先生文集』 권2, 「兩司諫改正靖國功臣啓 三」.

러한 도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 위 아래가 서로 믿어서, 임금과 재상들은 항상 사림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지니시고, 선을 행하는 자로 하여금 의지할 데가 있게 하십시오. 더욱이 그가 선을 행하는 사람임을 알면 그를 드러내어 등용하시어, 현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뒤섞이지 못하게 하시면 이상적인 정치(至治)를 보게 될 것입니다.<sup>8)</sup>

조광조는 신하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군주에게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요컨대 왕권과 신권이 상보적인 입장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사림파의 정치철학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언로는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로의 개방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하였다. 군주 또한 언관의 언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관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날 때 군주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고 도학정치의 실현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사림파는 이를 통해서 훈구파를 견제함과 동시에 자기들의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또한 요순삼대의 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자, 소인을 구별하여 군자는 등용하고 소인은 퇴진시켜야 한다는 인재등용방법을 모색하였다. 과거는 성리학에 침잠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도학파는 일정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도학정치를 추구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법제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변법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념이 사림파 개혁정치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sup>9)</sup>

8) 『靜庵先生文集』 권3, 「檢討官時啓 二」.

9) 이병휴, 「도학정치의 추구」, 『한국사』 28, 국사편찬위원회, 1996.

### Ⅲ. 유교적 향촌질서 확립운동

#### 1) 유향소 복립운동

성리학의 정통적 계승자로 자부하던 사림세력은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훈구파의 부국강병책과 詞章중심의 학풍을 비판하고 留鄕所를 비롯한 향촌자치제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향촌사회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계진출 이전부터 향촌사회 문제에 대해 그들 나름의 방식을 제시하여 관권 우위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향촌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사림의 향촌문제에 대한 관심은 왕조 초기의 유향소 설치, 세종대의 社倉制 실시 건의 등으로 나타났다. 사창제 실시는 세조의 집권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 사림이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성종대에 오면 이들은 향촌문제를 재추진하면서 세조 때 혁파된 유향소의 復立運動을 전개하였다.<sup>10)</sup>

사림들이 생각하는 유교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이 지향했던 유교적인 향촌질서가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15세기는 유불이 교체하는 과도기였다. 15세기 말까지도 당시의 사회는 고려조적인 불교와 淫祀를 밀바탕에 깔고 그 위에 유교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신흥사대부가 주자학적 실천운리를 숭상해서 실천해 나가는 사회였다. 사대부가 조정에서는 불교를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자기의 부녀자들은 사원에 출입하면서 불교적인 의식에 젖어 있었다.<sup>11)</sup> 사림들은 이러한 종래의 고려조적인 佛敎的이고 淫祀의인 吏族중심

10) 李泰鎮, 「士林派의 留鄕所 復立運動-朝鮮初期 性理學 定着의 社會的 背景-(下)」, 『震檀學報』 35, 1973;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11)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출판부, 1979, 10-13쪽.

의 향촌사회를 士族 중심의 유교적인 향촌질서체제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사림들의 유교적인 향촌질서 확립과정은 성리학적 교육과 윤리·의례의 수용 및 사림과의 성장과 유기적인 관련 하에서 진행되었다. 사림들은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유교적인 향촌사회 확립을 위해 『朱子家禮』·『小學』·鄉射禮·鄉飲酒禮 등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보급하여 나갔으며, 그 실행장소로서 세조 때 혁파된 유향소의 복립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15세기 사림들이 지향하는 유교적인 향촌질서 확립을 위한 유향소 복립운동은, 이것이 사림세력의 기반이 될 것임을 간파한 勳舊戚臣系의 집요한 반대와 京在所를 통한 방해공작으로 성공할 수 없었고 오히려 官權 주도형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그들은 다시 司馬所를 세워 본래의 의도를 관철코자 하였지만 이 역시 훈척계의 탄압으로 여의치 못하였으며, 이후 사림계열은 무오·갑자사화를 거치면서 일대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사림계의 유향소 복립운동의 실패는 곧 그들의 힘의 한계를 뜻하는 것이다. 이 시기 사림계의 기반은 아직 영남지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2) 향약보급운동

무오·갑자 양대 사회로 사림계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사림과의 성장이라는 시대적인 대세는 어쩔 수 없었다. 중종반정 이후 조광조 등 신진사류가 중앙정계에 등장하면서 道學政治의 실현을 위한 정치활동이 활발해지고 한편으로 향촌문제에 관하여서는 종래의 향사·향음주례에서만 한 단계 더 나아가 향촌사회의 여러 문제를 보다 더 포괄할 수 있는 鄉約의 보급운동을 추진하였다.

유교적 향촌질서 확립운동이 향사례·향음주례에서 향약으로 바뀐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시기 사림과 사이에는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향약은 『소학』에 실려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향약 보급운동은 바로 소학 실천운동이었다.<sup>12)</sup> 소학의 가치발견과 이에 근거한 향약 보급운동은 이 시기 관인들의 사회적 비리는 궁극적으로 성리학적인 수신으로밖에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에 의하여 향약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것은 중종 12년(1517)이다. 물론 이보다 앞서 지방에 따라서는 이미 향약이 시행된 곳도 있었지만, 이때 경상도 咸陽의 유생 金仁範이 여씨향약의 실시를 주장하는 상소를 하차<sup>13)</sup>,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신진사류들이 찬성하고 중종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시를 보게 되었다. 이해에 경상도관찰사였던 金安國이 여씨향약을 印出하였고, 이듬해에는 金安國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향약이 언해되어 반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림과의 향약 보급운동은 기묘사화로 인하여 전면적인 혁파로 종결되었다.

이후 향약은 16세기 중반 사림과 세력들이 그 세력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지방 곳곳에 전파되었다. 시행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禮俗을 보급하고, 농민들을 지방사회에 긴박시켜 토지로부터의 이탈을 막고 공동체로 결속시킴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컸다. 향약은 형태가 다양하였던 만큼 규약의 내용도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류가 있다. 대개 어렵고 구차한 때에 서로 돕고 구원

12) 李泰鎭, 「士林派의 鄉約普及運動」, 『韓國文化』 4, 1983 ;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13) 『중종실록』 권28, 12년 6월 갑술.

하며, 상호간에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는 것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여씨향약의 4대 덕목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었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되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인 향촌 자치 조직으로 香徒와 각종 契가 있었는데, 이것이 향약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다 재지사족들의 향촌자치 기구인 유향소의 운영 규정에 향약이 접목됨으로써, 향약은 조선시대 사족들의 대표적인 자치 규약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 배출된 한국의 대표 성리학자들이 향약을 제정하고 보급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학통을 계승한 후학들에 의해 점진적인 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향약은 16세기 이래 영남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다양한 형태로 보급되고 운영되었다. 자치 기구인 유향소를 중심으로 鄉規와 鄉案을 향약과 접목시켜 운영하기도 했으며, 동리별로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와 상호 간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향약이 실시되기도 했다. 또한 특정 인물의 문인이나 후손들, 같은 연배들끼리 향약 조직을 결성한 사례도 확인된다. 심지어 어촌의 상부상조 조직이 향약의 조직으로 변모되는 경우도 있었다. 향촌 자치 규약과 교화를 위해 실시되었던 향약이 성리학 적 생활규범의 정착과 맞물려 여러 자치 조직을 대표하는 규약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남에서의 향약은 퇴계 이황이 명종 11년(1556) 고향인 경상도 예안의 유향소에서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鄉立約條」, 이른바 ‘退溪鄉約’ 또는 ‘禮安鄉約’을 시작으로 널리 확산되었다.<sup>14)</sup> 퇴계 이후 그의 문인들은

14) 정진영, 「16세기 향촌문제와 재지사족의 대응 - ‘예안향약’을 중심으로 -, 『민족

자신들의 고을과 동리에서 향약을 시행해 나갔다. 영남 지역에서 향약이 유향소의 운영 규정 및 향안 질서와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반부터 확인된다. 퇴계의 「향입약조」를 시작으로 안동권의 후학들은 「鄉規舊條」, 「新定十條」, 「退溪先生鄉立約條後誌」 등의 제 규정과 그 시행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 나가며, 유향소를 중심으로 향약 시행을 확산시켜 나갔다. 특히 金圻는 17세기 초반 여씨향약과 퇴계의 ‘鄉立約條」를 조합한 「향약」을 제정하였는데, 그 규정은 영남 지역에서 시행된 여러 향약에서 인용된다. 영남의 향약은 퇴계를 거쳐 김기에 이르러 완성되었는데, 김기의 향약은 영남향약의 모범이 되었다.<sup>15)</sup> 이후 향약은 조선사회에서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하여 지방사회와 풍속을 교화시키고 향촌민들의 단합을 이끌어 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3) 퇴계의 서원보급 운동

유향소복립운동, 향약실시 등 사림세력들의 유교적 향촌질서 확립운동은 중앙집권정책과 이에 기초한 관료세력과 계속 마찰을 일으켰다. 서원은 이러한 마찰을 여러 차례 겪은 끝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던 제도이다. 이와 같이 사림세력이 향촌사회의 구심점을 서원으로 바꾼 것은 宋代 서원제도의 일정한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단은 서원자체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 教化를 표방함으로써 정치적 반대세력으로부터의 견제를 그만큼 덜 받을 수 있는 기구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림을 결집하고 향촌활동을 합리화해 줄 수 있는 중심체로서 서원

문화논총』 7, 1986 ;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15) 정진영, 「조선후기 영남향약의 특성」, 『향토사연구』 4, 1992.

제도가 을사사화 이후 사림세력이 실세하였을 때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 서원의 성립은 사림세력들의 향촌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단으로서 사림세력 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sup>16)</sup> 이후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 제도는 본격적인 발전을 보게 되면서 재지 중소지주층의 지식인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에 있어서 서원제도는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설립으로 출현하였지만 이후 서원을 조선사회에 보급·정착시키고 그 성격을 규정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퇴계 이황이었다. 퇴계는 참다운 성리학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서 서원제를 주목하였다. 그가 중앙과 지방에 관학인 성균관과 사학, 향교가 존재함에도 새로이 서원 건립에 나선 것은 기존의 관학에서는 참다운 유학자를 기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퇴계는 당시 조선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집권층의 권력을 이용한 私利 추구를 배제하고 公道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당시 관료사회 부패는 土習의 不正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고, 이는 수기를 통한 正人心한 인간형의 창출로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퇴계는 이와 같이 治人の 전제로서 爲己之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서원이라는 새로운 학제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였다.<sup>17)</sup>

퇴계는 당시의 정치현실에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당시 각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는 의욕적인 신진사림들에게 희

16) 李泰鎭, 「사림과 서원」, 『한국사』12, 국사편찬위원회, 1977 ;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17) 정만조, 「退溪 李滉의 書院論」,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60-67쪽.

망을 걸었다. 따라서 그는 향촌의 士子에게 주자학적 정치이념과 학문체제를 혼도하고 수련시킴으로써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발판으로 다가올 사림의 시대를 준비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송대 주자에 의해서 창안된 지방사학인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교학체제의 확립은 선초 이래 있어온 중앙통제방식의 관학적 교화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향촌사림 위주의 새로운 교화체제의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퇴계의 이와 같은 입장은 명종 15년에 그가 쓴 「迎鳳書院記」에 뚜렷이 드러난다.

옛날 융성한 삼대시절에는 교육에 대한 제도가 극히 잘 구비되어 있어서 家에 塾이 있고, 黨에 庠이 있으며, 州에 序가 있고, 國에 學이 있었으니, 어느 곳을 가든 학교가 아닌 데가 없었다. 후세에 내려와서 교육이 붕괴되어 國學과 鄉校는 겨우 형식만 남아 있을 뿐, 家塾·黨庠의 제도는 아예 없어졌다. 그러므로 독실한 뜻을 갖고 배우기를 원하는 선비가 있더라도 책을 꺼안고 찾아갈 곳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서원이 생기게 된 이유이다.

대개 서원이 家塾·黨庠과 제도는 비록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것으로 그 모두가 風化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道를 아는 선비와 善治를 원하는 임금이 여기에 정성을 다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이것이 근고에 중국에서 서원이 성행하고 우리나라 역시 오늘날에 와서 서원이 시작되는 까닭이다. 이 모두가 가르침과 배움을 넓히어 교화의 근원을 도타히 하는 것인데, 더하여 廟宇를 세워 先賢을 제사지내기까지 한 즉 서원에서 道를 높이고 人才를 양성하는 방법이 더욱 갖추어졌다고 하겠다.<sup>18)</sup>

여기에서 보면 삼대에는 가숙, 黨庠, 州序, 국학의 教法이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후대의 국학과 향교는 형식만 남아 있을 뿐이어서 篤志願學하

18) 『退溪全書』 권42, 「迎鳳書院記」.

는 사람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원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퇴계는 서원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관학인 향교와 성균관은 항상 분담한 변화가에 위치해 있어서 차별하게 공부할 수 없고, 또한 과거와 관련되고 學습에 구애받기 때문에 출세주의·공리주의를 떠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퇴계에 있어서 서원은 講明道學과 尊賢立祠를 위한 기구로 주자학의 연마와 사회실천윤리의 실현을 위한 중심지였다. 이러한 퇴계의 인식은 이후 사람계열에서 주장하는 서원론의 골격을 이루었다.<sup>19)</sup>

퇴계의 이 같은 입장은 그가 건립에 관여하였던 성주 영봉서원에서 제향인물 선정과정에서 보면 뚜렷이 나타난다. 영봉서원에 고려 충신이자 유학자였던 李兆年과 그의 손자 이인복, 김굉필 3인을 제향하고자 할 때, 퇴계는 도학자와 충절인을 서원에 같이 제향하는 데에는 물의가 있을 것이라 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충절인은 鄉賢祠에 제향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였다. 이에 서원 건립을 주관하였던 성주목사 노경린이 퇴계에게 편지하여 중국서원 제향자의 예를 들어 3인의 並祀가 불가하지 않다고 하자, 퇴계는 서원에 제향되는 인물은 도학자 위주여야 한다는 견해를 명백히 하였다.<sup>20)</sup> 이는 그가 생각하는 서원은 오로지 사림의 도학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퇴계는 그러나 이러한 서원제도가 과거를 통한 관료로의 진출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전혀 외면하지는 않았다. 다만 퇴계는 伊山書院 院規에서 治人之學(과거공부)과 위기지학을 內外·輕重·本末로 설

19) 정만조, 앞의 논문, 60-67쪽.

20) 『退溪全書』 권12, 書, 答盧仁甫(庚申), 第三書

명하면서 서원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 퇴계가 주창한 서원제는 사회 현실과 유리된 이상에 치우친 학제는 아니었던 것이며, 당시 참다운 성리학의 토착화를 통한 새로운 사회를 기대하였던 향촌사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참신한 교육제도였던 것이다.

이러한 퇴계의 서원보급 운동에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서원은 단기간에 하나의 교육제도로써 자리잡게 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 근거지뿐 아니라 특히 지방관 재직시에 서원 건립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퇴계 문인 17명이 지방관으로 22개소의 서원 건립에 관여하였다. 이들은 부임지에서 서원 건립 논의를 주도하거나 鄕人들의 서원 건립을 독려·권면하고 행정·경제적 지원을 담당하였다. 또 건립 후에도 서원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다하고 강학활동에 참여하는 등 서원 운영에도 적극적이었다. 퇴계 문인으로 서원건립에 관여한 사람은 56명으로 43개 서원의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이 시기 서원 건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나아가 서원제의 전국적인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sup>21)</sup>

이러한 서원제도가 도입과 동시에 빠르게 조선사회에 정착하게 되는 것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절실하게 새로운 교육제도의 창출을 원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 퇴계의 서원 창설운동은 향촌에서의 참다운 성리학의 토착화를 위한 환경조성 운동 내지 새로운 교육문화창출 운동이었던 것이다.

조선사회에 있어서 서원제는 17세기 초반까지는 퇴계의 서원론에 기초한 향촌사림의 공동체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일정한 시대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퇴계 서원론의 근본 취지와는 차이점이 없지 않겠지만, 선조조

21) 권시용, 「퇴계문인의 서원건립활동」,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9.

이후 본격화되는 사림정치는 바로 이 서원의 인재양육을 통한 사림의 저변확대에 의해 그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서원내 교육활동에서 함양된 士論(淸議)에 크게 영향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퇴계의 서원교육론은 단순히 당시 사회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고,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을 내다보는 교육 본연의 의미에 충실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IV. 절의사상 구현 - 하양허씨가문 사례-

선비들은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중시하였으며 이 대의명분을 절의사상에서 찾았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절의사상의 실천적 내용으로 忠를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충절의 모습이 선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활동이었던 것이다. 조선전기에 이러한 선비들의 충절의 모습은 많은 사례가 있지만, 여기서는 세조정변시의 하양허씨 가문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하양허씨 가문은 세종말에서 문종, 단종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에 許詡·許璉 부자가 유교적인 정치이념과 명분에 따라 일관되게 충절을 지킨 대표적인 가문이다. 태종·세종조의 유교정치를 대표하는 재상인 許稠의 자인 허후는 부의 명성을 이어 세종말에서 문종·단종으로 이어지는 격변기에 황보인·김종서 등과 함께 조정을 대표한 핵심관료였다.<sup>22)</sup>

22) 허조 가문의 충절에 대해서는 이수환, 「世祖의 王位篡奪과 敬庵家門의 對應」, 『敬庵 許稠研究』(河陽許氏文敬公派宗親會, 2003)을 다시 재정리하였다.

그는 세종 8년(1426)에 식년문과에 同進士로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448년에는 예조판서가 되었다. 문종 1년(1451)에는 右參贊에 임명되어 예조판서를 겸무하게 되었다. 이해에 문종의 병환이 위급하자 왕의 측근에서 환후를 보살폈으며, 문종이 죽자 황보인·김종서 등과 함께 문종의 고명을 받아 어린 단종을 보좌하는 위치가 되었다. 이와 같이 허후는 세종말, 문종·단종조에 황보인·김종서 등과 함께 의정부를 대표하는 명신으로 사실상의 조정을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김종서를 비롯한 의정부 대신들의 권력 전횡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등 조정 에 임하는 자세는 매우 엄격하였는데 이러한 허후의 강직하고 엄격한 자세는 부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

허후의 조정일에 있어서의 엄격함은 세조에 대한 입장에서도 분명히 들어난다. 단종 1년 9월에 수양대군이 誥命謝恩使로 명나라로 가려고 하자, “지금 임금이 나이 어리므로 대신이 붙좃지 않고 백성들이 친부하지 않는데, 이때에 나라의 주석인 대군께서 나라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하고 만류하였다. 이는 당시 의정부 대신과 대군측이 권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허후는 의정부 대신의 일원이었지만 권력의 항배보다는 나라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허후가 황보인·김종서와 더불어 의정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유정란 후 세조가 처단하지 않았던 것은 이같은 허후의 공평무사한 일 처리를 좋게 보고 자기세력으로 끌어앉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여진다.<sup>23)</sup>

따라서 세조는 계유정란이 성공한 후 10월 11일에 정부의 인사를 새로 개편하면서 자기가 領議政府事를 맡고 허후를 의정부 좌참찬으로 삼았

23) 『燃藜室記述』 권4, 端宗朝 世祖靖難,

다. 그러나 허후는 내심으로 세조측이 일으킨 계유정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계유정란 축하연에서 수양대군이 김종서·황보인 등의 역모한 사실을 설명하였으나, 이를 시인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을 두둔하였다. 그리고 수양대군이 그들을 효수하기를 의논하자 효수하지 말 것을 泣諫하였다. 이때의 사정을 『단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허후는 항상 밖으로는 충성하고 바른체 하며 안으로는 禍心을 품고 조정을 濁亂하였다. 매양 제수하는 날이면 반드시 먼저 비밀히 김종서의 집에 가서 注擬할 것을 稟受한 다음에 정청에 나와 제수하였으며, 廷臣과 연결하여 支黨이 조정에 가득하였다. 허후는 정난하던 날에 이르러 마음에 불평불만을 품어 세조가 황보인 등의 난을 꾀한 사유를 말하자, 허후가 말하기를 “김종서 같은 무리는 내가 감히 알 수 없지마는 황보인이야 어찌 난을 꾀하는 데에 참여하였겠소” 하여 말이 두둔하는 것이 많았다. 또 효수하기를 의논하니, 허후가 효수하지 말기를 청하고 슬픈 눈물이 속눈썹에 맺혔으며, 먹을 때를 당하면 고기를 먹지 않았다. 박종우가 보고 이상하게 여기니, 허후가 말하기를 “同官인 때문이다” 하였다. 또 정난한 하례를 정지하고자 하였다. 贊成을 제수하자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sup>24)</sup>

여기에서 보면 당시 허후의 조정에 임하는 자세가 단적으로 들어난다. 이때 이미 정변은 끝났고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허후는 자기 내심이야 그렇치않다 하더라도 가만히만 있으면 목숨은 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후는 세조측의 행위를 불의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죽음을 택하고 있다. 이같은 그의 행위는 그가 조정에 나아간 이래 관료로서 개인적인 안일보다는 조정에 대한 자기의 책무를 우선으로 삼고 있었던 그의

24) 『단종실록』 권8, 1년 10월 병신.

일관된 자세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와 같이 허후가 세조의 회유책을 거절하고 반세조의 입장을 분명히 하자, 10월 15일에 대간에서 허후 등을 법대로 처치하자는 상소가 있었고, 17일에는 의금부에 이들의 告身을 추탈하라는 傳旨가 내렸다. 이어 11월 11일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내용을 의금부에 전지하였는데, 이때 허후는 조수량 등과 함께 絞刑에 처하라 하였고,<sup>25)</sup> 이어 그 가족들에 대한 일련의 조치로 하양허씨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였다. 이때 모든 재산도 籍沒당하였으며, 다만 이때 조카들은 화를 면하였지만 이어지는 단종복위 의거에서 조카로 입양된 許樅가 자결하면서 멸문의 지경에 처해졌다.

그러나 허후의 국가에 대한 충절은 그의 죽음과 동시에 당대에 이미 평가를 받고 있었다. 세조는 육신사건을 겪고난 뒤 이들은 당대에는 逆臣이지만 후세의 충신이라고 칭찬한 뒤 “허후가 살았더라면 육신이 七臣이 될 번 하였다” 고 언급하면서<sup>26)</sup> 허후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세조의 지적은 허후의 단종조에서의 위상이나 그 이전의 그의 일관된 행적을 보면 충분히 예상된다.

이러한 허후의 유교이념에 입각한 충절은 세조조 단종복위 의거때에는 子 許樅에게로 이어졌다. 세조의 왕위 즉위 과정은 유교적인 명분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반발이 뒤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른바 사육신을 중심으로 한 단종복위 의거는 세조의 선위 형식을 빈 왕위찬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발이었다. 사육신에 속하는 성삼문·박팽년·하위지 등은 계유정난 이후부터 세조

25) 『단종실록』 권9, 1년 11월 계해.

26) 『정조실록』 권29, 14년 2월 경오, “敎曰 … 光廟聖敎曰 若使許詡在者六臣當爲七臣”.

2년(1456)에 걸쳐 세조로부터 우대를 받았다. 그러나 유교적 명분론이 몸에 배인 이들로서는 계유정란은 방관하였지만, 단종의 양위와 세조의 즉위는 유교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점에서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金碩이 거사 계획 일부를 정창손과 함께 세조에 密啓함으로써 사전에 발각되었다. 곧바로 성삼문이 체포되어 세조의 친국을 받고, 뒤이어 하위지·이개·박팽년·김문기 등 관련자들이 계속 체포되어 문초를 받았다. 유성원은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 그날 바로 자결하였다. 이들은 대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모진 매에 못견뎌 자백하게 되면서 사건이 확대되어 단종까지 거론되었다.<sup>27)</sup> 이러한 단종 복위를 위한 거사에 허조는 모의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허조에 대해서는 실록에

전 집현전 부수찬(수찬의 잘못) 허조가 스스로 목을 찢러 자결하였다. 허조는 이개의 매부로 역모에 가담하였기 때문이다.<sup>28)</sup>

라고 짚막하게 기술되어 있다. 세조는 허조가 자결한 이날 즉각 집현전을 폐지하고 經筵을 정지시키고 소장도서는 예문관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는 거사 주모자들의 다수가 집현전과 經筵官 출신이라는 데서 취해진 조치였다.

허조가 이 단종복위 의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태종·세종조 유교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한 許稠와 계유

27) 『세조실록』 권4, 2년 6월 을사.

28) 『세조실록』 권4, 2년 6월 갑진.

정변때 희생된 허후의 孫과 子라는 점에서 본다면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다. 유교적 이념에 투철했던 父祖의 학문적·정신적 유산을 계승해 왔던 허조로서는 세조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허조는 허후의 弟인 訥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에 입양되었으며, 세종 29년(1447)에 문과 급제 이후 문종조에는 집현전에서 부수찬, 修撰으로 오래 재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종복위 거사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집현전 관인들과는 밀접한 친교가 있었다. 또한 그는 사육신의 한사람인 이개의 매부이고, 병력 동원을 책임 맡은 김문기와는 사돈 관계에 있었다. 장자 延齡이 김문기의 사위이다.

이렇게 볼 때 허조는 이들과 함께 단종복위 거사가 처음 모의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허조가 자결하고 그 다음날 의금부에서 박팽년이 자백한 사실을 근거로 계를 올려 “박팽년·유성원·허조 등이 지난해 겨울부터 성삼문·이개·하위지·성승·유응부·權自愼과 함께 당파를 맺어 반역을 도모하였으니, 그 죄가 陵遲處死에 해당한다”<sup>29)</sup>고 하였는데, 여기에 사육신을 포함한 주모자 9명 중에 허조가 거명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을 일차 마무리 하고 세조가 내린 赦教<sup>30)</sup>에 의하면 가담자를 네 부류로 분류하여 27인을 거명하고 있는데 허조는 문신 10인 중에 거명되고 있다. 27인 중 ‘唱謀作亂’자로 이개를 지목하였고, ‘同惡相扇’한 자로 문신 10인, ‘爲之羽翼’으로 무신 9인, ‘潛通宮禁’으로 궁중관계자 7인이 거명되었다. 여기에서 보면 무신들을 우익으로 삼았다고 표현된 데서

29) 『세조실록』 권4, 2년 6월 을사.

30) 『세조실록』 권4, 2년 6월 정미.

알 수 있듯이, 이 의거는 당시 유교이념에 투철했던 문신들이 주도하고 무신을 우익으로 삼아 궁중관계자와 연결하여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볼 때 허조는 문신 10인 중 한 사람으로 거명되고 또 창모작란자로 지목된 이개의 매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종복위 의거에 있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주모자 중의 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종복위 의거에 대한 세조의 조치는 가혹하였다. 먼저 6월 7일에 박팽년이 문초에 자복하고 옥중에서 죽자 의금부에서는 1차로 박팽년과 이미 자결한 유성원·허조 2인의 시체를 거열 효수하였고 시체는 전국에 전하여 보였다. 나아가 세조는 지난 4일에 내렸던 역모자의 처자식으로 10세 이상도 囚禁하라는 명령에 이어 친자들은 모조리 絞刑에 처하도록 명령하였다. 허조의 2자 延齡과 九齡은 이때의 조치로 교형에 처해졌다. 또한 연좌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明律대로 시행하자는 의금부의 계에도 불구하고 왕명에 의하여 연좌자들을 邊邑奴婢로 永屬하도록 하였다.<sup>31)</sup> 이는 대명률보다 더 중한 벌이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처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세조는 이 사건을 고변한 자들에 대한 論賞을 하고, 아울러 반 세조편에 섰던 종친들과 餘黨에 대한 처벌을 조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허조의 아내 安非, 딸 義德은 전 판중추원사 이계전에게, 모 花山, 누이 小斤은 겸 軍器府正 郭連城에게 급부되었다.<sup>32)</sup> 아울러 세조는 3년 3월 23일에 이들의 田地도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였는데.<sup>33)</sup> 이때 허조의 通津 전지는 이

31) 『세조실록』 권4, 2년 6월 병오.

32) 『세조실록』 권5, 2년 9월 갑술 ; 권8, 세조 3년 8월 임자.

33) 『세조실록』 권7, 3년 3월 병술.

관에게, 하양 전지는 도승지 한명회에게 지급되었다. 이때의 조치에서는 家舍가 있는 경우 家財까지도 모두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허후·허조 부자 양대가 세조측에 정면으로 맞선 결과 이 가문은 참혹한 화를 입어 멸문의 지경에 이르렀지만, 허후·허조 두 부자의 충절은 세조 당시부터 이미 높이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이후 신원되면서 역사상에 충절과 절의를 뚜렷이 할 수 있었다. 韓致應은 『修撰公逸稿』 서문에서 “슬프다 정간공은 육신의 충으로서 육신보다 먼저 죽었고, 공(수찬공)은 정간공의 충으로서 육신과 함께 죽었고, 두 아들도 뒤따랐다”고 하며, 이들 부자의 충절은 육신에 못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V. 학문적 정통성 확립 - 문묘종사 운동 -

### 1) 사림파의 도통확립

사림파는 신왕조의 건국을 내심으로 반대하였던 국초의 재야세력과 15세기 중엽 세조의 등극을 내심 불의로 간주하였던 절의파의 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일찍부터 훈구파와는 다른 ‘정몽주 → 길재 → 김숙자 → 김종직’으로 이어지는 학문적인 계보의식을 갖고 있었다. 사림파의 이러한 학문적 계보의식은 그들의 정신적 지향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선비정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림들의 학문적 계보의식은 중종조 조광조 일파에 의하여 정설화되어 갔는데, 중종 13년 4월에 조광조는 자기의 스승인 김굉필의 학문상의

공헌을 진언하는 자리에서 그의 학통의 유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굉필 같은 사람은 비록 당시에 벼슬은 하지 못하였으나, 지금의 선비들이 그의 풍모를 듣고 선행을 하려는 자가 또한 많으니, 이는 모두 굉필의 힘입니다. ... 김종직은 처음 길재에게 수업하였으니, 길재는 곧 정몽주의 문인입니다. 그러니 (김)종직이 傳業한 연원은 실로 그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sup>34)</sup>

중종대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명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 강화와 관련하여 그들의 영수인 조광조의 학통을 그의 스승인 김굉필에 잇고 그것을 다시 東方理學之祖인 정몽주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었다.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사림들은 이러한 학문적 계보의식을 갖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 정몽주와 김굉필의 문묘중사를 추진하였다.

이때의 문묘중사 논의는 먼저 5년과 9년에 정몽주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12년 8월에 조광조와 연결된 성균생원 權礪이 정몽주·김굉필 양인의 중사를 청하는 상소<sup>35)</sup>를 올림으로서 크게 재연되었다. 문묘중사 문제는 문묘에 1인을 배향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유교를 국가통치이념으로 하는 조선사회에 있어서 유학의 적통자를 밝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들의 학문적 계승자로 자처하는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계열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도학적 정통성을 부여받는 한 방법이 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입장과 집권의 명분 강화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두고 공신세력과 조광조로 대표되는 신진사

34) 『중종실록』 권32, 13년 4월 정유.

35) 『중종실록』 권29, 12년 8월 경술.

림 간에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몽주·김굉필의 문묘종사에 대해 훈구파의 입장에서 보면 정몽주의 경우 전조의 인물이라는 데서 수용할 수도 있었지만, 김굉필의 경우 양대 사회에 의해 희생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문제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광조 일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훈구파의 반발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김굉필의 문묘종사는 실패하였지만 이러한 사림파의 학문적 계보의식은 정설화되어 갔다. 이는 기묘사화 이후 인종 때 성균진사 朴謹의 상소에서 확인된다.

조광조의 학문이 바른 것은 전해온 데에 유래가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개연히 도를 찾는 뜻이 있어서 김굉필에게서 수업하였습니다. 김굉필은 김종직에게서 수업하고 김종직의 학문은 그 부 司藝 숙자에게서 전해졌고, 숙자의 학문은 고려의 신하 길재에게서 전해졌고 길재의 학문은 정몽주에게서 전해졌는데 정몽주의 학문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이니, 그 학문의 연원이 이러합니다.<sup>36)</sup>

이와 같이 사림파내의 학문적 계보는 기묘사화를 전후한 시기의 사림에 의해 제기되어 정통성리학의 계보가 ‘정몽주 → 길재 → 김종직 → 김굉필 · 정여창’으로, 인종조에는 조광조를 김굉필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림파의 학문적 계보의식은 16세기 후반 본격적인 사림정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황·기대승 등에 의하여 하나의 국론으로 통일되다시피 하였다.<sup>37)</sup> 이후 명종말 퇴계에 의해 이언적이 추송되면서 동방사현의 승무운

36) 『인종실록』 권1, 원년 3월 을해.

37) 『선조실록』 권1, 즉위년 10월 갑진 ; 11월 을묘. 4현에 대한 추존은 선조 즉위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대승은 朝講에서 조광조를 賢士, 이언적을 賢者, 이황·김굉필을 賢人이라고 추앙하고, 정몽주·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동과 함께 도통이 확정되었다.

이 시기 문묘종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정여창의 부각과 이언적의 편입이라 할 수 있다. 정여창은 중종대 김굉필과는 달리 당시 문묘종사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조대 사우연원과 정주학적 이학이 강조되자, 그의 학문에서 보이는 이학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문묘종사로 이어지게 되었다.<sup>38)</sup> 특히 이언적의 문묘종사에는 퇴계의 역할이 컸다. 이언적은 명종초 사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을사사화시 척신정치에 대해 온건한 대응방식을 취했다는 점에 대해 당시 사림으로부터 비판이 없지 않았다. 선조조 사림이 당색상 동서 또는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당색에 따라 인물평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이언적에 대한 논평도 당색에 따라 달랐는데 율곡·남명계열은 이언적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언적이 선조조 이후 ‘동방4현’ 내지 ‘5현’의 한 분으로 추존되면서 조선조 정통성리학 계보상의 정맥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은 당시 사림의 영수인 퇴계의 적극적인 추숭에 의해서였다. 당시 퇴계는 훈척세력의 퇴조와 사림정치의 성립기에 임하여 앞서의 기묘·을사사화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훈구세력에 대한 사림세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묘사림에 의해 이미 계보화된 도통을 조광조와 이언적으로 잇기 위하여 양현의 行狀을 혼신의 정력을 쏟아 찬술하였다.<sup>39)</sup> 특히 퇴계는 이언적의 행장을 찬술함에 있어서 “옛부터 성

---

학문적 연원을 언급하면서, 조광조·이언적을 表章·추존하여 기묘·을사이래의 시비를 분명히 할 것을 주청하였고, 이어서 이황은 4사람을 賢士로 칭하면서 이들을 伸雪 表章함으로써 기묘이래의 시비를 분명히 할 것을 청원하였다.

38) 『선조실록』 권10, 9년 4월 정해; 『광해군일기』 권26, 2년 3월 임인.

39)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332-333쪽.

현이 후세를 위해 ‘淑人心·崇正學’의 규범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立言垂後’에 힘입어 기반이 마련된다. 그렇지 않다면 공맹정주와 같은 성현도 후세에 무엇에 근거해서 그 단서를 찾고 그 학문을 칭술하겠는가<sup>40)</sup>라 하여 저술이 없는 조광조에 대해서는 매우 곤혹을 느낀 데 반해 최초로 성리학에 관한 체계적인 저술을 남긴 이언적에 대해서는 극찬하였다.<sup>41)</sup> 이와 같이 퇴계가 조광조와 이언적의 행장을 찬술한 것은 성리학의 도통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퇴계는 앞으로 정계와 학계를 주도할 사람과의 도통을 확립함으로써 군신·조야를 막론하고 이의가 없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내 도통문제는 기묘사화를 전후한 시기에 사람에 의해 제기되어 정통 성리학의 계보가 정몽주 → 길재 → 김숙자 → 김종직 → 김굉필 · 정여창으로 이어졌고, 인종조에 가서는 조광조를 김굉필에 연결시킨데 이어 명종말 퇴계에 의해 이언적이 추송되면서 동방4현의 승무운동과 함께 도통이 확정되었다.

## 2) 동방오현 문묘종사

선조대 사람의 종사운동은 선조 원년(1568) 4월 태학유생들이 처음으로 김굉필 · 정여창 · 조광조 · 이언적의 사현 종사를 청원하는 상소를 시작으로, 선조 6년(1573) 이황을 추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선조 6년 이전의 문묘종사 논의는 조신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예컨대 白仁傑은 조광조만의 문묘종사를 청하였고, 영의정 李浚慶은 김굉필 · 조광조 두 사람만의 종사를 주장하였고, 유희춘도 김굉필 · 조광조 두

40) 李滉, 『退溪集』 권12, 答柳仁仲論趙靜菴行狀別紙.

41) 柳希春, 『眉巖日記草』 2책, 戊辰(선조원년) 6월 20일조 ; 『晦齋集』 附錄, <晦齋李先生行狀>.

사람을 우선 중사하는 것이 공론이라고 하였다. 또 조신들 사이에는 4현을 일시에 중사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때의 4현 문묘중사는 사림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조야의 적극적인 호응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때의 문묘중사 청원은 선조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조광조·이언적 등 기묘·을사파 화인들이 신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42)</sup>

이와 같은 선조초의 중사운동 과정에서 사람들은 문묘중사 실현을 위한 전단계로서 『國朝儒先錄』<sup>43)</sup>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4대사화 희생자의 상징적인 존재인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 네 사람의 학문과 행적을 담아 당대 내지 후대의 교범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즉 그들을 중죄인의 족쇄에서 풀어내어 儒先·전범으로 곧 본받아야 할 인물로 자리잡게 하였던 것이다.<sup>44)</sup> 『유선록』이 갖는 의미는 중대해서 그 편입여부가 문묘중사 여하와 관련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정통성에도 관련되고 있었다.

사림의 중사운동은 선조 6년(1573) 이황을 추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그들은 두 차례에 걸쳐 五賢從祀 청원 상소를 올렸다. 이와 같이 유생들이 4-5명의 유현을 한꺼번에 중사하려는 시도는 전례가 없는 과격

42) 설석규, 「朝鮮時代 儒生의 文廟從祀 運動과 그 性格」, 『조선사연구』 3, 1994, 147-156쪽 ; 이수환, 「16세기전반 영남사림파의 동향과 동방오현 문묘중사」, 『한국학논집』 45, 2011, 66-74쪽.

43) 『國朝儒先錄』은 부제학 柳希春이 선조 3년(1570)에 임금의 명령으로 편찬하였다. 그 체제와 내용은 유학을 숭상하고 이단을 배척한 『伊洛淵源錄』을 모방하여 정몽주 이후 성리학에 정진한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 등 四賢의 기록을 엮은 책이다. 김굉필의 문헌은 주로 『景賢錄』에서 뽑았으며, 정여창과 조광조는 견문을 수집하거나 『經筵日記』에서 수집해 편집하였다. 그리고 이언적의 글은 『晦齋集』에서 추출하였다. 권두와 권말에 1570년에 쓴 李俊白의 序와 유희춘의 跋이 실려 있다.

44) 이병휴, 앞의 논문(2005), 222쪽.

적인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특정인물에 국한되지 않은 그들의 종사운동은 사림세력을 하나로 결집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종사운동은 결과적으로 훈척정권을 와해시키고 사림세력 주도의 정국운동을 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45)</sup> 이러한 사람들의 문묘종사 논의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다소 주춤하기는 했으나 그들의 상소운동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문묘종사 논의에 대해 선조가 이언적의 을사사화 당시의 행적을 문제 삼고 나오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조의 비답은 조야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조야에서는 ‘晦齋辨誣疏’가 빗발치게 되었다. 그러나 유생들의 오현종사 운동은 더 이상 파급되지 못하고 유보되기에 이르렀다.

광해군대에 와서 다시 사람들의 공통된 과제로 선조대에 유보되었던 오현 종사 청원운동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광해군대의 종사운동은 향촌유생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공론의 확대와 결속력을 과시하면서 전개되었다. 광해군 즉위년(1608) 7월 경상도 유생 李堧 등의 청원소를 시작으로 관학 및 향촌유생들의 상소가 쇄도하였다. 이들 유소에 대해 광해군은 조정에서 의논하여 정할 문제라고 하여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종사운동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오현의 종사에 대한 재야의 공론은 일단 확인된 셈이었다. 이어 조정에서도 부제학 南以恭 등 홍문관원들이 오현 종사의 당위를 광해군에게 제기하고, 사헌부에서도 잇달아 오현 종사를 건의하는 것을 계기로 광해군도 태도를 바꾸어 대신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지

---

45) 설석규, 앞의 논문, 148-149쪽.

시가 있는 지 한 달 이상이 지난 뒤에 예조가 대신들 사이에 이론이 없었다고 보고하여 비로소 종사가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9월에 오현이 東西廡에 각기 배향됨으로써 선조대 이래 유생들의 오현 종사 청원운동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sup>46)</sup>

이와 같이 오현 종사는 당시 사림들의 공론에 입각해 성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당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북세력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대북의 경우 영수인 정인홍이 이미 『남명집』 편찬과정에서 이황을 비판한 바와 같이, 남인의 정신적 지주인 이언적과 이황의 문묘종사에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만 당시는 이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다. 대북세력의 본격적인 비판은 오현의 종사가 성사된 다음해인 광해 3년 3월에 정인홍의 ‘晦退辨斥疏’가 올라오면서 부터이다.<sup>47)</sup> 이 소에 대해 吳允謙·金尙憲 등 승지들이 비난하고 나서고, 이어 유생들이 집중적으로 정인홍을 공격하면서, 서·남인계과 대북계 유생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관학유생 李穡 등 500여 명이 조관이 유림에게서 죄를 얻으면 削名한다는 예규를 근거로 청금록에서 정인홍 이름을 삭제해 버렸다. 이에 광해군이 수창유생을 유적에서 삭명하고 종신 금고토록 조치를 내리고, 유생은 空館으로 맞섬으로써 양측 간의 대결이 크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측 간의 대결에서 대북세력은 광해군의 일정한 비호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회적 기반이 경상우도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서·남인 연합세력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논쟁은 3년 8월 이후

46) 설석규, 앞의 논문, 152-153쪽.

47) 『광해군일기』 권39, 3년 3월 을축.

소강상태로 들어가면서 자연 종결되었다.<sup>48)</sup>

## VI.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전기 선비라는 주제로 사림파의 특징적인 면 중 도학정치, 유교적 향촌질서 확립운동, 성리학적 대의명분으로서의 절의사상, 집권의 명분 강화를 위한 학문적 정통성 강화(문묘중사)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조선왕조는 건국 당시부터 유교국가를 표방하였지만, 유교적인 이상국가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중종조 조광조의 등장부터이다. 조광조는 이러한 유교정치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자가 먼저 유교적 가르침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비들의 기풍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유교정치이념을 확고하게 제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 사림파들이 제시한 도학정치의 근본이념은 爲民, 愛民에 두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賢哲君主論, 언로의 개방, 새로운 인재등용방법 등을 모색하였다.

사림세력은 향촌사회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향촌에서 교육과 유교적 향촌건설에 주력하였다. 사림의 향촌문제에 대한 관심은 왕조 초기의 유향소 설치, 세종대의 社倉制 실시 건의 등으로 나타났다. 사창제 실시는 세조의 집권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 사림이 중앙정계에 본

48) 설석규, 앞의 논문, 153-155쪽 ; 韓明基, 「光海君代의 大北勢力과 政局의 動向」, 『韓國史論』 20, 1988, 299-307쪽.

격적으로 진출하는 성종대에 오면 이들은 향촌문제를 재추진하면서 세조 때 혁파된 유향소의 復立運動을 전개하였다. 이는 유향소를 통해 『朱子家禮』·『小學』·鄉射禮·鄉飲酒禮 등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보급하여, 종래의 고려조적인 佛敎의이고 淫祀의인 吏族중심의 향촌사회를 士族 중심의 유교적인 향촌질서체제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5세기 사림들이 지향하는 유교적인 향촌질서 확립을 위한 유향소 복립운동은 勳舊戚臣系의 집요한 반대와 京在所를 통한 방해공작으로 성공할 수 없었다. 이후 사림계는 무오·갑자사화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사림파의 성장이라는 시대적인 대세는 어쩔 수 없었다. 중종반정 이후 조광조 등 신진사류가 중앙정계에 등장하면서 道學政治의 실현을 위한 정치활동이 활발해지고 한편으로 향촌문제에 관하여서는 종래의 향사·향음주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향촌사회의 여러 문제를 보다 더 포괄할 수 있는 鄉約의 보급운동을 추진하였지만 이도 기묘사화로 실패로 돌아갔다.

이와 같이 사림세력들의 유교적 향촌질서 확립운동은 중앙집권정책과 이에 기초한 관료세력과 계속 마찰을 일으켰다. 서원은 이러한 마찰을 여러 차례 겪은 끝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던 제도이다. 사림세력이 향촌사회의 구심점을 서원으로 바꾼 것은 宋代 서원제도의 일정한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단은 서원자체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 敎化를 표방함으로써 정치적 반대세력으로부터의 견제를 그만큼 덜 받을 수 있는 기구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원을 조선사회에 보급·정착시키고 그 성격을 규정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퇴계이다. 퇴계는 참다운 성리학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서 서원제를 주목하였다. 퇴계는 당시 조선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집권층

의 권력을 이용한 私利 추구를 배제하고 公道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당시 관료사회 부패는 士習의 不正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고, 이는 수기를 통한 正人心한 인간형의 창출로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퇴계는 이와 같이 治人の 전제로서 爲己之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서원이라는 새로운 학제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교학체제의 확립은 선초 이래 있어온 중앙통제방식의 관학적 교화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향촌사림 위주의 새로운 교화체제의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림파는 중앙정계에 나서면서 학문적 정통성 강화에 나섰다. 사림파는 신왕조의 건국을 내심으로 반대하였던 국초의 재야세력과 15세기 중엽 세조의 등극을 내심 불의로 간주하였던 절의파의 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훈구파와는 다른 ‘정몽주→길재→김종직→김굉필·정여창’으로 이어지는 학문적인 계보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후 인종조에는 조광조를 김굉필에 연결시키고, 명종말 퇴계에 의해 이연적이 추송되면서 동방사현의 승무운동과 함께 道統이 확정되었다. 이후 사림파들은 그들의 도통을 확정짓기 위해, 퇴계를 포함하여 동방오현의 문묘종사를 추진하여, 선조 1년부터 광해 2년 9월까지 43회에 걸친 상소와 집중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하나의 국론으로 통일되다시피 하여 성사시켰다.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단종-광해군), 『靜庵先生文集』, 『退溪全書』, 『燃藜室記述』, 『眉巖日記草』(柳希春)

-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출판부, 1979.
-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 李秉休, 『朝鮮前期 畿湖士林派研究』, 일조각, 1984.
- 李秉休, 『朝鮮前期 士林派의 現實認識과 對應』, 일조각, 1999.
- 鄭斗熙, 『朝鮮時代 人物의 再發見』, 일조각, 1997.
- 李泰鎭, 「士林派의 留鄕所 復立運動-朝鮮初期 性理學 定着의 社會的 背景-(下)」, 『震檀學報』 35, 1973 ;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 李泰鎭, 「士林派의 鄕約普及運動」, 『韓國文化』 4, 1983 ;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 李泰鎭, 「사람과 서원」,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7 ;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 정만조, 「退溪 李滉의 書院論」, 『韓沽勅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 정진영, 「16세기 향촌문제와 재지사족의 대응 - '예안향약'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7, 1986 ;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 정진영, 「조선후기 영남향약의 특성」, 『향토사연구』 4, 1992.
- 권시용, 「퇴계문인의 서원건립활동」,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9.
- 李羲權, 「東方五賢 文廟從祀 小考」, 『전북사학』 7, 1983.
- 金鎔坤, 「16세기 士林의 文廟從祀運動」,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3.
- 薛錫圭, 「朝鮮時代 儒生의 文廟從祀 運動과 그 性格」, 『조선사연구』 3, 1994.
- 이병휴, 「도학정치와 추구」, 『한국사』 28, 국사편찬위원회, 1996.
- 이수환, 「世祖의 王位篡奪과 敬庵家門의 對應」, 『敬庵 許稠研究』, 河陽許氏文敬公派宗親會, 2003.
- 이수환, 「16세기전반 영남사람과의 동향과 동방오현 문묘중사」, 『한국학논집』 45, 2011.

Abstract

## Confucian Ideal Society Pursued by Seonbi during Early Chosun

Lee, Soo-hwan

The topic of this study is seonbi during early Chosun and is going to look into Confucian ideal society that they pursued then. The seonbi in Chosun generally refers to the sadaebu during late Goryeo and early Chosun. Concerning the foundation of Chosun Dynasty, they were divided into Gwanhakpa and Sahakpa, and then, after the Sejojeongbyeon, they were separated into Hungupa and Sarimpa. The aspects of seonbi, the topic of this paper, are more distinctly found in Sarimpa as the force criticizing the hungu force that ruled in the 16th century.

In this period, the sarim force exhibited several characteristics differently from the ruling power. The key points are that (1) they pursued Dohak politics to found a politically Confucian ideal state, and this was genuinely started from Jo Gwangjo. (2) In the point that the academic activities were done on the residing ground of hyangchon, they were strongly characterized by the color of hangdang(鄉黨). Their major concern over the matters of hyangchon was to reorganize the previous Goryeo's ijok(吏族)-centered hyangchon society that was based on Buddhism and eumsa(淫祀) into the Confucian system of hyangchon order centered around sajok(士族). For this, they developed the Yuhangso Restoration Movement and also Hyangyak-Seowon Distribution Movement in order to spread practical, new-Confucian ethics including 『Jujagarye(朱子家禮)』, 『Sohak(小學)』, Hyangsarye(鄉射禮), or Hyangeumjurye(鄉飲酒禮). (3) They transmitted and practiced the notion of Jeolui(節義) as the pretext of new-Confucianism. (4) They also promoted the Munmyojongsa Movement to solidify their academic legitimacy to justify their reign. This study has arranged

the aspects of the sarim force in that period with the four characteristics above.

Key Word

Jo Gwangio(趙光祖), Toegye(退溪), Hayang Heossi(河陽許氏), Dongbangohyeon(東方五賢), Munmyojongsa(文廟從祀)

▪ 논문투고일 : 2015.1.8. 심사완료일 : 2015.2.14. 게재결정일 : 2015.2.14.